

진인사대천명의 마음가짐으로, 나만의 공부법을 개척해 나가다



김성연

-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졸업
- 2021년도 5급 공채 일반행정직 합격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2021년 5급공채 일반행정(전국) 직렬에 합격한 김성연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수험방향에 대한 확신이 떨어질 때마다 여러 선배님들의 합격수기를 읽으며 제 공부법을 다듬어 나가곤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직접 합격수기를 작성하게 되어 감회가 새로울 따름입니다.

저는 2019년부터 2년 6개월 가량의 수험기간을 거쳐 2021년에 최종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수험기간을 되돌아보며 제가 겪었던 고충들과 공부법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기술해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II. 시기별 행정고시 준비과정

1. 2019년 1월 ~ 2019년 6월

대학교 2학년을 마친후 PSAT 적합성을 시험해보기 위해 급하게 1차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어차피 2차 시험장에 들어가도 답안을 제대로 쓸 수 없으니 1차에 대한 감만 잡아보자는 마인드였기 때문에, 헌법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PSAT 기본강의만 수강한 상

태로 시험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헌법은 과락을 하였지만 합격컷에 비해 8점 정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에 PSAT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지 않고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때 헌법까지 제대로 준비하여 2차 시험장에 들어가 보는 경험을 했다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비교적 높은 1차 점수를 받으면서, 빨리 해치우자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급하게 고시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저는 예비순환을 비롯한 고시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대학교 수업과 병행하여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예비순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는 제가 고시 공부를 하면서 가장 후회한 것 중 하나인데, 아무런 예·복습 없이 말그대로 강의만 들었기 때문에 이후 사실상 노베이스로 1순환을 듣게 되어 상당히 고생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종 법학원 및 강사님들에 대한 사전정보도 없었기에 유일하게 알고 있던 한림법학원에서 전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저는 황중휴(경제학), 김정일(행정법), 박경호(행정학), 김희철(정치학) 강사님의 예비순환 강의를 들었는데 이후 행정법은 정선균 강사님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님을 변경할 경우 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각 강사님의 수업 방식 및 커리큘럼을 알아본 후에 본인과 맞는 강사님을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2. 2019년 7월 ~ 2020년 2월

예비순환 과정을 마친 후 19년 7월에 대학교 고시반에 입실하여 본격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우선 19년 하반기에는 1순환 및 2순환 강의를 따라가느라 바빴습니다.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1순환은 모두 수강하였고 2순환의 경우 정치학을 제외한 세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초시생 때는 선택과목으로 정보체계론을 선택하였기에 선택과목은 별도로 강의를 듣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하루 스케줄은 주로 전날 강의 복습 및 저녁 강의로 이루어졌고 약 11~12시간 정도의 공부시간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다른 과목에 대한 감을 잃지 않기 위해 행정법 강의를 들 때는 경제학 문제풀이를 병행하고, 행정학 강의 시기에는 행정법 공부도 추가하는 등 과목 수를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2순환 시점까지 지속하다가 12월 즈음에는 1차 공부도 함께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자료해석, 상황판단, 언어논리 순으로 실전모강 강의를 수강하면서 매일 모의고사를 풀었고, 그 외의 시간에는 헌법과 2차 공부를 유지했습니다. 실전모강 강의가 끝난 후에는 개인적으로 사설 모의고사를 구매하여 헌법부터 상황판단까지 하루 한세트를 풀고 간단히 오답을 하였으며 저녁시간에는 경제학 문제풀이 또는 행정법, 행정학 암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약 한달 가까이 유지하다가 시험날 2주전부터는 기출문제를 한바퀴 돌리면서 실전 감각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1차 시험이 무기한 연기되었고 저는 다시 2차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3. 2020년 3월 ~ 2020년 8월

1차 시험이 잠정 연기되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우선 2차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거시경제학(황중휴) 1순환, 행정법(정선균) 1순환을 재수강하였습니다. 한번 들었던 강의였기에 배속을 높여 빠르게 들은 후 그외의 시

간에는 경제학 모의고사 및 연습책 풀이를 하였고 김성현 강사님의 정치학 3순환도 추가로 수강하였습니다. 이렇게 약 2달 정도 공부한 후 4월 말부터 다시 PSAT 대비를 시작하였고, 하루에 PSAT 한 세트와 경제학 연습책 및 행정법 핸드북 암기를 틈틈이 병행하였습니다.

저는 2020년 1차 시험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받게 되어 큰 걱정 없이 곧바로 3순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당시 초시생으로서 처음 경험한 3순환 일정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반부터 모의고사를 작성해야 했는데 답지를 참고하지 않고는 답안을 채울 수 없었기에 자신감도 매우 떨어졌고, 고시진입후 약 1년 가까이 혼자서 공부를 했었기에 약간의 우울증 증세도 겪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원을 모색하게 되었고 운 좋게도 학과 선배님들과 연락이 닿아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어느 정도 몸상태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스터디를 통해서 행정학과 행정법을 위주로 공부했고 기본적인 내용 암기 및 모의고사 답안 작성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3순환 시기에 저는 오전 강의를 수강하고 오후 및 저녁에는 다른 과목 스터디, 경제학 문제풀이, 교수모강 등을 하며 하루를 보냈고 약 13~14시간 정도의 순공시간을 유지하였습니다.

4. 2020년 9월 ~ 2021년 2월

2차 시험이 끝난 후, 어떻게든 답안지 10장을 다 채우긴 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험이 끝난 이후 3일 정도 쉬 후에 곧바로 고시반으로 복귀하였고 경제학(황중후) 1순환을 재수강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학기에는 휴학을 하지 않고 학교수업과 병행을 하

게 되었는데 시간표를 짤 때 최대한 경제학, 행정학 등의 고시관련 과목으로 구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였습니다. 이후, 행정법, 행정학 1순환 및 정치학(도란동이) 강의를 수강하였고 경제학 및 행정법 답안작성 스터디는 쪽 병행하였습니다. 다만 20년도에 2순환 강의는 전혀 듣지 않았고 주로 스터디를 활용하여 직접 답안을 써보고 스터디원들과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12월 중순쯤 코로나로 인해 고시반이 폐쇄되어 자취방에서 자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공부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집중하기가 매우 힘들었지만 공부하기 편하도록 집구조도 바꾸고 추가적으로 스터디에 참여하여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공부시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주로 스터디원들과 경제학 문제풀이 내용이나 행정법 답안을 사진으로 찍어 인증하고 이에 대해 온라인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PSAT 점수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차공부에 매진하다가 21년 1월부터 슬슬 PSAT감을 회복하기 위해 문제풀이를 병행하였습니다. 헌법은 핵심강의를 수강하여 리마인드시켰고, PSAT은 각종 사설 모의고사를 틈틈이 풀었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도 여전히 2차 공부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경제학 문제풀이, 행정법 답안스터디, 지방행정론 서브노트 제작 및 암기를 하였습니다. 2월부터 본격적으로 PSAT대비를 시작하였고 합격선보다 약 9점 정도 높은 점수로 1차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5. 2021년 3월 ~ 2021년 7월

이번 3순환에서는 새로운 관점을 접해보기 위해 김진욱 강사님의 경제학을 수강하며

step3문제집을 풀었고, 류준세 강사님의 행변 사기를 토대로 한 답안작성 스테디, 그리고 정치학 암기 스테디를 새롭게 진행했습니다. 여러 강사님들의 정치학 강의를 들어도 정치학의 큰 흐름이 도무지 잡히지 않아 고민이었는데, 해당 암기스테디를 통해 강제로라도 내용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어 나름대로 정치학에 대한 감이 잡힐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저는 아침 8시에 출근하여 새벽 1시 정도에 퇴근하였으며 하루에 5과목 전부 최소 한번씩은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공부 스케줄을 짰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약 3달의 시기가 아마 제가 살면서 가장 열심히 공부한 기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7월 중순에 2차 시험을 치른 후, 작년에 비해 문제가 어려워지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작년 2차보다도 답안을 제대로 못 썼다는 생각이 들어 전혀 합격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 휴식을 취한 후 고시반에 복귀하였으나, 다행히 합격문자를 받았고, 최종합격까지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Ⅲ. 과목별 준비과정 및 방법

1. 1차 과목

(1) PSAT

저는 PSAT 강의로는 이나우(언논), 박준법(상판), 석치수(자료) 강사님의 기본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유형 파악이나 시험시간 운영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이후에는 오로지 각종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통해 소위 양치기식 공부를 계속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피셋 점수가 나오는 분들은 굳이 추가적인 강의를 듣기보다 양치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공부하셔도 1차는 충분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모의

고사 풀이 이후 틀린 문제에 대해서 따로 오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해당 문제와 똑같은 문제는 절대 출제될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간 문제를 붙잡고 고민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접해보고 제한된 시간 내에 풀이법을 찾는 연습을 해보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2) 헌법

우선 헌법의 경우 60점만 넘기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시간을 과투입하실 필요는 없으나, 지난 헌법 기출의 경향을 살펴보면 그 난이도가 매년 들쭉날쭉하였기 때문에 너무 안심하진 마시고 최소한 교과서 1회독 및 모의고사 풀이 정도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 20년 1차를 보기 전에는 김유향 강사님의 기본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강사님의 교재는 5급 헌법에 나올만한 웬만한 현재 판례는 다 담고 있고 그 설명도 친절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21년 1차를 준비할 때에도 이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교과서 복습 뿐만 아니라 김유향 강사님의 기출변형 문제집과 실전 모의고사도 반복해서 풀었고 헌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21년 1차를 준비하면서는 상대적으로 짧은 회차안에 교과서를 1회독하는 핵심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이후 개인적으로 1회독을 더 하였고 이번에도 역시 실전모의고사를 풀며 실전 감각을 되살렸습니다.

(3) 종합

1차 시험의 경우 개인적인 독해력, 속독 및 계산능력 등에 따라 점수가 크게 좌우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누군가는 처음부터 고득점하

기도 하고 누군가는 상당한 노력을 통해 몇 십점의 점수를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시 진입 이전에 선제적으로 본인의 1차 역량을 시험해보시는걸 추천드리며 본인 점수에 맞는 1차 전략을 구성해보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오히려 1차를 준비하는 과정과 실제 시험 당일까지 유지할 수 있는 강한 멘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 시험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함은 고시생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이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시험을 치르는 당일에도 그냥 모의고사를 친다는 생각으로 맘 편히 볼 수 있는 마음가짐이 더 좋은 성적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2. 2차 과목

(1) 경제학

경제고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5급 공채에서 경제학은 가장 큰 공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논문 과목에 비해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점수 몇점이 평균 점수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법이나 행정학의 경우 일반적으로 60점만 넘겨도 고득점에 속하는 반면, 경제학의 경우 80점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경제학에서 높은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고시에 진입한 후 황종휴 강사의 예비순환을 들으며 처음 경제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학 용어 및 원리들도 처음에는 너무 생소했으나 반복적으로 순환강의를 듣다 보니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비순환·1순환 단계에서 경제학의 기초를 올바르게 잡아두는 것이 이후 문제

풀이 및 심화로 나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황종휴 강사님의 1순환 강의는 제가 3번이나 들을만큼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데 매우 용이했고 그 정도 반복한 이후에서야 혼자서도 경제학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윤지훈 강사님의 강의 역시 경제학의 원리나 개념 등의 기본기를 다지는데에 매우 좋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순환강의 외에도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황종휴 연습책 문제를 풀었고 시험이 다가올 때에는 하루에 무조건 20개씩 (미시 10, 거시 10) 문제를 푸는 스티디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연습책만 거의 4~5번 반복해서 풀다보니 거의 문제유형이 외워질 정도여서 그 외에 김진욱 강사님의 step시리즈나 윤지훈 강사님의 120제도 함께 풀었습니다. 경제학의 경우 다른 과목에 비해 답안의 틀이나 형식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노트나 이면지에 답만 도출하는 식으로 빠르게 풀어냈습니다. 경제학 답안작성은 3순환 시점에 강사님들 모의고사나 교수모강을 풀면서 보충적으로 연습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냥 닥치는대로 많은 경제학 문제들을 풀어보는데에 주안점을 둔 것 같습니다. 사실 강사들의 강의를 따라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문제를 푸는 건 내가 아니라 강사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체화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문제에 많이 부딪혀볼수록 실전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일단 도전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21년 4문에서 처음 보는 내용의 문제가 나와 매우 당황하였으나 주어진 공식과 발문의 내용을 토대로 어떻

게든 끄적이다 보니 정답을 도출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 행정법

행정법은 생각보다 고득점하기가 어려워서 방어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정법의 기본 논리구조만 정확히 이해하면 충분히 60점대 이상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기에 제 전략과목으로 삼았고, 초시 때에 비해 약 10점 정도 점수를 상승시키며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아무런 정보 없이 김정일 강사님의 예비순환을 수강하였으나 저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1순환 부터는 쪽 정선균 강사님 커리큘럼을 따라갔습니다. 강사님의 행정법 예기스라는 교과서를 통해 기본학습을 한후 사례연습을 통해 목차 및 답안작성 연습을 했습니다. 또한 행정법은 암기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행정법 핸드북은 항상 들고다니면서 틈틈이 외웠던 것 같습니다.

행정법 역시 강의만을 따라가다 보면 나만의 논리를 구성하기보다는 다른 이의 답안을 따라가기에 급급하여 형식화된 답안을 써내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행정법의 핵심은 '법적 논리'구성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문제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결론이 타당함을 주장하고 싶다면 이러한 결론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를 마치 돌다리 쌓듯이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문제는 쟁점이 이거겠구나'하여 그 쟁점을 소위 '바르는'것이 아니라 이러한 쟁점이 왜 문제되며, 해당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다른 중간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를 깨우친 후에는 강사님의 논

리대로 맞춰가기 보다는 다양한 사례문제를 풀어보며 저만의 논리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고, 핸드북에 나온 말들을 그대로 베껴쓰는 것이 아니라 배점 분량에 맞도록 제가 사용할 만한 표현들을 재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행정법의 경우 답안 연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스터디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시간 압박도 덜하고 자신이 쓴 답이 옳은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스터디원과 서로의 답안을 공유하고 피드백하다보면 그 자체로 좋은 학습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 류준세 강사님의 행변사기 사례집을 통해 스터디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행정법은 정말 답안을 많이 써보는 걸 추천드리고 시간이 부족하거나 손목에 무리가 올 경우에는 목차 잡는 연습이라도 계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행정학

행정학은 박경효강사님의 커리큘럼을 따라 모든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강사님의 '재미있는 행정학'교재(이하'재행')는 처음 행정학 내용을 이해하고 큰 흐름을 잡는데에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수험기간 내내 이 책을 중심으로 공부하였고 재행의 요약본을 서브노트로 제작하여 보다 들고다니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행정학과 같은 논문과목은 경제학이나 행정법 등에 비해 쉽다고 느껴질 수는 있으나 소위 '행정학스러운' 답안을 써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암기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제일 처음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우선 재행 암기 스터디에 참여했습니다. 강제로라도 각종 이론 및 학자 그리고

사례들을 접하면서 행정학에 대한 친숙함을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암기재료를 가지고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였고 강사 모의고사보다는 기출문제를 작성하는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행정학의 경우 최근 트렌드가 가장 많이 반영되는 과목이므로 교수모강을 들으면서 최근의 행정학 이슈나 새로이 등장한 이론, 용어들을 추가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

행정법과 더불어 스터디 덕을 가장 많이 본 과목 중 하나로 행정학을 꼽을 수 있습니다. 행정학은 정해진 특정 답이 없고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갈래의 답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을 공유하고 자신의 시각을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답안작성시 가장 중점에 둔 것은 '구체성'입니다. 답안을 쓰다보면 조금은 뻘하고 추상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거나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소설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말들로 분량을 채울 수는 있으나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선 질문에 부합하는 답안 내용을 큰 덩어리로 구상한 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이론과 사례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고자 노력하였고 가벼운 표현 하나조차도 최대한 행정학 논문이나 교재에서 쓰이는 용어를 따라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행정학은 기본 내용 암기와 구체성 있는 답안 작성 연습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따라가면서 내용을 숙지하고, 총론과 각론을 연계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지속하시면 행정학에서도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 정치학

정치학은 위 3과목 대비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입한 과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모든 과목 중 내용 자체는 제일 방대하나 깊이 공부하지 않더라도 답안은 어느 정도 써낼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시생 때 김희철 강사님의 예비순환 및 1순환, 김성현 강사님의 3순환까지 수강하였으나 정치학의 흐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출문제만 한번 훑어본 뒤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찌저찌 답안은 10페이지 분량을 모두 채울 수 있었고 제 기대에 비해서는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재시를 위한 전략을 수정하면서 정치학은 조금만 제대로 공부하면 상당한 고득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강의 수강 보다는 정치학 흐름을 잡기 위한 암기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윤정진 강사님의 정치학 교재는 그 흐름이 매우 잘 정리되어 있는데, 이를 서브로 제작한 후 빈칸을 뚫어놓고 테스트를 보는 방식으로 스터디는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약 10페이지 분량을 암기하였고 3순환 기간 동안만 총 3회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치학 흐름뿐 아니라 여러 학파와 학자까지 외울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정치학에 대해서 큰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치학의 경우, 다른 과목에 비해 답안작성의 형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유로운 편에 속합니다. 오히려 문제에서 주어진 이론이나 개념을 정확히 표현하고 이를 현실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특정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비교적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다는 점도 정치학의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기본 이론, 학자, 학파 등에 대한 내용을 암기하신 뒤 여러 교과서나 교재를 읽고 본인의 견해와 관점을 정리하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재밌고 수월하게 정치학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지방행정론

저는 초시 때는 정보체계론을 선택하였으나 과목의 흐름이 잡히지 않아 재시를 준비하면서 지방행정론으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행정론은 암기할 내용이 많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부 법조문이나 관련 사례를 암기하는 것이 전부이고 어떤 제도의 장단점 등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조금만 고민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었기에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윤경 강사님의 1순환과 3순환을 수강하였고, 강사님의 교재를 토대로 저만의 서브노트를 제작하여 암기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지방행정론 역시 행정학만큼이나 최신 트렌드를 많이 반영하는 과목이므로 가장 최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나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들은 강사님께서 3순환 때 나눠주신 보충자료를 통해 학습하였습니다. 답안 작성은 따로 연습하지 않았으며 시험 직전까지 관련 자료와 서브노트를 암기하는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행히 실전에서 강사님께서 집어주신 문제가 출제되었고 불의타 문제였던 21년 3분 역시 서브노트에 적어두었던 내용이었기에 비교적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행정론은 행정학 및 행정법과도 겹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과목을 공부하는 것에 비해 부담이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행을 공부하실 때만

큼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 서서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특정 제도가 갖는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을 계속 고민해보시면 지방행정론이 '암기'보다는 '이해'에 가깝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IV. 나가며

행정고시에 진입하여 합격의 기쁨을 맛보기까지는 상당한 끈기와 의지, 그리고 강한 멘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하고 하나둘씩 취업을 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조금씩 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러한 감정들이 맞물려 한때는 우울증 증세를 겪기도 하였고 합격이라는 문턱이 너무나 높게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좁고 높은 문일지라도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매년 존재하고 그 중 한명이 내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제 자신을 세뇌시켰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러한 자신감과 강한 의지는 제가 힘든 수험기간을 견딜 수 있도록 해준 가장 큰 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고시공부를 하다보면 때로는 너무 지치고 외로운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친구 또는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하루 정도 맘편히 쉬면서 본인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자신의 건강도 함께 챙기시면서 공부할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글솜씨이지만 행정고시를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